

# 구례 백두대간생태체험... '꽃길 걷고 치유명상'

### 튤립·수선화 만발한 백두대간 수변공원 산책하며 힐링 가족·연인들과 함께 마음 치유하는 힐링 프로그램 개발

올봄 들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백두노초과남보 손수 제작한 목재화분과 돌탑 사이로 천 송이 튤립과 수선화가 피어나고, 수양홍도가 붉게 물들어 수변공원 따라 산책을 즐기는 이들과 상춘객들이 찾아오고 있어 구례군의 또 하나의 볼거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아름드리 소나무가 풍채를 자아내고 있는 연못에는 은하수에 다리를 놓아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해주었다는 오작교가 있고, 그 주변으로 삼색개키비들의 연봉홍 잎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지리산 노고단에서 발원하여 화엄사 계곡을 따라 내려오는 맑은 물이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수변공원까지 흘러 들어온 연못 속에는 1급수 물고기과 다슬기가 자라고 있으며, 이를 사냥하려는 새들이 찾아와 생생한 자연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펼쳐진다.

이밖에도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은 백두대간을 알리고 홍보하는 백두대간 전시관, 길을 잃은 아기반달곰의 지리산 모험이야기를 다룬

4D영상체험관, 기후변화공감전시관, 야의 생태학습장, 지리산정원의 사계절 사진 그리고 다수 서각 작품과 구례수목원에서 자생하는 수많은 꽃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이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체험프로그램으로는 반려식물 심기, 클레이로 미니정원 만들기, 압화 원목트레이 꾸미기 등 선착순으로 접수 중이며, 체험은 배치된 숲해설사와 함께 백두대간 생태환경의 해설을 시작으로 이루어지며 가족, 연인, 어린이 및 유치원생 등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금년 6월에는 식물 자동화시스템이 탑재된 '스마트가든'으로 실내 정원을 조성하여 구례수목원과 지리산정원에서 자생하는 식물들이 어우러진 생생한 포토존을 선보일 예정이다. 방문객들의 볼거리 제공 및 식물 생태 교육환경이 제공될 예정이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숲해설사가 주도하여 지역주민과 관람객이 함께하는 치유 명상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하여 일상생활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부프로그램으로는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는 ▶백두대간 수변길 산책 ▶스마트가든 생태환경 관람 ▶생태체험(반려식물기르기 및 정원미니어처 만들기) ▶지리산 4D영상체험이 이루어지며,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는 ▶기획전시관 관람 ▶지리산·구례의 역사 및 사계관람 ▶요가 ▶소리명상(판소리, 가야금소리 등) ▶숲을 담은 차마시기와 구례수목원 산림치유명상 연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구례백두대간생태교육장, 지리산역사문화관, 구례수목원(그늘정원 등 13개 주제전시원, 식물전시원 등), 지리산정원(금속휴랜드, 유아숲체험원, 구례생태숲, 지리산자생식물원) 등과 연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오감을 만족하는 힐링 명소로 거듭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 화순군, 장기간 방치·보관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추진

5월 31일까지 '대국민 폐가전 대청소의 날'

화순군이 배출방향이 어려워 장기간 방치·보관 중인 폐가전을 무상으로 방문 수거하는 '대국민 폐가전 대청소의 날' 캠페인을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캠페인은 기존 무상방문 수거서비스 대상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폐가전 관련 제품과 부속품까지 확대해 일괄 수거하는 것으로 보조배터리, 충전기, 전동킥보드 등 49종이 포함된다. 부속품만으로는 수거신청이 불가능하며, 기존 대상(대형 폐가전제품 또는 중소형 폐가전제품 5개 이상) 수거신청 시 부속품까지 수거 가능하다.

방문 수거는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누리집(www.15990903.or.kr) 또는콜센터(1599-0903)에서 예약 신청하면 된다. 별도 가입 절차와 수수료가 없고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지 않아도 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마음별로 가정에 방치된 소형 폐가전을 모아 방문 수거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된다"며 "폐가전제품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해 무상 수거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 담양군, 대전면 도시재생 예비사업 '천년느티 한마당축제' 개최

담양군은 지난 2일 대전면 행복문화센터 일원에서 도시재생추진위원회 및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재생 예비사업 '천년느티 한마당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지난해 선정된 도시재생 예비사업 사업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공연, 전시, 체험 등 다양한 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또한 축제와 함께 도시재생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원도심 주변을 중심으로 도시가 생명력을 가지고 다시 탄생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자리도 함께 했다.

군 관계자는 "천년느티 한마당축제를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대표 축제로 만들기 위해 많은 지역민들이 함께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 나주시, 반복되는 배꽃 개화기 저온·서리피해 촉각

#### 열풍·살수장치 등 피해 예방 시설 사전점검...과원 예찰 철저 기해야



전국 최대 배 산산지인 나주시가 배꽃 개화에 맞춰 반복되는 저온·서리 피해 예방을 위한 농가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4일 나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배꽃은 평년 기준 4월 중순 즈음 개화하지만 기후변화 영향으로 매년 앞당겨지면서 이달 10일 경 대부분 만개할 것으로 예상돼 저온·서리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화기 저온피해는 영하 온도에서 발생한다.

배꽃 만개 시기 -1.7도(℃) 환경에 30여 분이 노출되면 꽃의 씨방이 쉽게 변하면서 고사한다.

열매가 맺혀도 기형과, 생리장해가 발생해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농가는 개화기 저온·서리 피해 예방을 위해 방상환(열풍), 살수장치(미세살수·포그식)를 사전 점검해야 한다. 해당 장치가 없는 경우 톱밥·액화·고형연료 등을 활용한 연소법을 준비해야 한다. 발아가 시작되면 과원 로터리 작업을 통해 낮 동안 태양열을 흡수시키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아울러 과원 배꽃 상태를 수시로 살피고 기상 상황을 주시해 야간 영하온도가 나타나는 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매년 저온·서리 피해가 발생한 농가는 안전한 인공 수분용 꽃가루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발생 시 인공수분 횟수를 높여 결실량을 확보해야 한다.

나주배 주품종인 '신고'의 수분수로는 꽃가루가 풍부한 주황·슈퍼골드·장조·만황 품종이 있다. 피해 발생 이후에는 열매를 숙는 적과 시기를 늦추고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하며 수세가 약한 나무는 수세회복을 위해 비료를 살포한다. 농업기술센터는 배꽃 만개기 전후(4월 6~15일) 10일 간 서리·저온 발생 대비 비상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기간 기상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한 서리 대비 안내 문자, 농가별 사후대책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

조성은 나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매년 앞당겨지는 배꽃 개화기로 저온·서리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코로나19, 과수화상병으로 수입꽃가루 사용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 결실량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며 "개화기 기상 정보에 관심을 갖고 수시예찰을 통한 저온 대응 준비에 철저를 기해줄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동취재본부

### 곡성군, 블루베리 공선출하회 출범식 개최...자공심 고취

곡성군이 지난 3월 31일 곡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블루베리 공선출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은 블루베리 공동출하시스템 구축을 기념하고 블루베리 공선출하회원 자공심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 출범식에는 블루베리 공선 출하회원, 농업 관계자, 담양 공무원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블루베리 공선출하회와 농협은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곡성군은 2010년부터 블루베리를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기 시작했다. 이후 10여 년이 지나면서 지난해 재배 면적 34ha, 연간 생산량 200톤, 매출 규모 44억 원의 생산 규모에 이르렀다. 또한 2014년부터는 블루베리 조기 재배 확대 정책을 시행해 조기 재배 규모를 7ha까지 확대했다. 그 결과 블루베리 생과 조기 재배 전국 3위에 오르며 국내 블루베리 주요 산지로 자리잡았다. 지역 내부에서도 블루베리가 새로운 소득 과수로 완전히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 특산물로서 블루베리의 중요성이 높아지자 곡성군은 농업인 단체, 농협과의 9차 협의회를 통해 블루베리 공동 선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나눴다. 이에 따라 공동 선별회 규약과 출하 약정서를 만들고, 금년 3월에는 블루베리 공동선별 포장재를 디자인하기도 했다.

기동취재본부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들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 SPS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엔텍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남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